

불법 광고 퇴치에 '통화 폭탄' 효과

정읍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광고물에 5~20분 간격 자동 전화 발신 불법현수막 전화번호 정지·결번 처리율 91%...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정읍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내놓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전북 최초로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

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같은 결과로 정읍시는 매년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60%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91%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등 약 200여 장의 불법 광고물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계도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

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했다. 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교육도 마쳤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삼동굿놀이' 농업인 소득화 모델로



남원시는 2023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보절면의 '삼동굿놀이'를 농업인 소득화 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삼동굿놀이 공연 모습. <남원시 제공>

전국민속경연 대통령상 수상 등 지역 대표 문화행사 남원시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4억2000만원 확보

남원시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3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공모에 신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남원시(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경문화 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해 남원시 보절면의 '삼동굿놀이'를 농업인 소득화 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삼동굿놀이는 선발된 동자(3명)를 장년의 어깨에 세우고 마을을 돌며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출세를 기원하는 의례다. 기세배, 당산제, 삼동굿놀이굿, 마당밧기, 판굿 등을 하는 이 고장의

특유한 전통 민속놀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문화부 지정 전라북도 민속축제로 선정됐다"면서 "이 고장의 명예와 자부심, 정체성을 담고 있는 민속문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음력 7월 백중일에는 양춘, 음춘, 개신 등 3개 마을은 물론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이 고장의 자랑스러운 민속 예술 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동리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

판소리계 최고 권위...30일까지

고창군이 판소리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고창 동리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도법인 동리문화사업회와 고창군은 제32회 동리대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 사장 이만우)가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한 분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후보자 신청 자격은 국가·지방 판소리 무형문화재나 판소리 연구 또는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창작, 교수, 연구자와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법인 포함)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제32회 동리대상은 심사위원회 비공개 토론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시상식은 동리 탄생일이자 추모 기념일인 11월 6일 오후 2시 동리극약당에서 열리며 수상자와 제자 등이 꾸미는 축하공연도 함께한다. 고창군은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호선생의 업적을 계승하고 판소리 발전을 위해 동리정사를 재현하고,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동리 신재호 선생 영정

대회와 판소리 체험을 개최하는 등 판소리 성지로서 위치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국제교류수업 10월부터 시범학교 운영

전주자연초·고창북고 등 4곳

전북지역 학생들의 온라인 국제교류가 시작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도내 초·중·고 학교와 해외 교류학교가 실시간 화상 공동 수업 및 비실시간 학생교류 등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 수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수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해외 교류학교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와 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미래역량을 기르게 된다. 도 교육청은 2학기 전주자연초·전주근영중·고

창북고·전북외국어고 등 초·중·고 4개교를 지정해 국제교류 수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들 학교와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일본, 독일, 호주,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6개 나라이다. 국제교류 수업 유형은 ▲전주자연초-뉴질랜드 케이스브룩 초·중학교 '세계시민교육 주제 프로젝트 수업' ▲전주근영중-일본 홋카이도 중학교, 독일 하일리겐트라우스 학교 '유네스코 협력학교 프로젝트 수업' 이다.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국제교류 수업 운영학교를 확대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2023년 국제교류 수업 참여학교 모집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사회적기업 '둘레' 인문학 토크 콘서트

정읍시, 29일 '농담' 진행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둘레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오는 29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농담 공연은 2019~2021년 총 13차례의 공연을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정읍만의 독보적인 공연으로 2019년 3월 26일 '시작(詩作)'이란 부제로 시작했다. 또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해가 진행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2022년 분기별 1회로 진행되는 농담은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을 콘셉트로 진행되며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며 민족대명절 추석을 보낸 9월 가을, 추석과 관련된 특별 게스트가 출연 예정이다. 안수용 사회적 기업 둘레 이사장은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라는 키워드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